

해맞이 명소, 성산일출봉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성산일출봉은 마치 제주를 지키는 섬처럼 바다위에 우뚝 솟아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시야에 넓게 펼쳐진 바다 너머로 떠오르는 해는 우리에게 넘치는 에너지를 전해준다. 오늘날 성산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숨겨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출로 |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리 1102-1 ~ 성산을 성산리 228-12(약 3km)

성산중앙로 |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 388-2 ~ 성산을 성산리 298-4(약 0.7km)

성산등용로 |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리 229-1 ~ 성산을 성산리 347-9(약 1.3km)

한도로 | 서귀포시 성산을 오조리 1314-1 ~ 성산을 성산리 298-18(약 2.7km)

오조로 | 서귀포시 성산을 오조리 1032-1 ~ 성산을 오조리 559-1(약 1.5km)

고성중앙로 |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 1588-3 ~ 성산을 고성리 1135-13(약 0.9km)

산성효자로 |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 1172-1 ~ 성산을 수산리 400-2(약 2.6km)

동류암로 |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 352-4 ~ 성산을 고성리 317-7(약 0.5km)

시흥하동로 | 서귀포시 성산을 시흥리 243 ~ 성산을 시흥리 12-64(약 1.2km)

일출로 | 성산일출봉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 성산일출봉. 일출로는 성산일출봉까지 이어지는 길을 의미한다. 해 뜨는 오름이라고도 하는 성산일출봉은 약 오천 년 전에 바닷물과 마그마가 만나는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생겨났다. 성산일출봉의 정상에 오르면 분화구의 모습이 마치 성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고려 때 삼별초를 지휘했던 김통정 장군이 토성을 쌓았다고 해서 ‘성산’이라 했다고 한다. 영주십경에는 이곳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는 풍경을 ‘성산일출’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경치로 꼽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지면서 성산일출봉으로 불리게 되었다.



성산일출봉

일출봉 등산로에는 등경돌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제주를 창조한 설문대할망이 길쌈을 할 때 불을 올려놓았던 등잔으로 썼던 바위라고 전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성산일출봉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군은 일출봉의 주위를 돌아가며 갱도진지를 만들었다. 열 곳이 넘는 이 동굴에는 강제로 동원된 마을 사람들의 고된 피와 땀이 서려있다. 이 밖에도 일출봉을 오르다보면 기이한 모양의 기암괴석들과 화산재가 층층이 쌓여있는 층리의 단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흔적들은 지질학적으로 수성화산 활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성산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산일출제를 여는데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성산중앙로/성산등용로 | 성산리와 포제단

성산중앙로는 성산리 마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성산일출봉이 있는 성산리는 제주의 가장 동쪽 해안가에 자리한 마을이다. 지도에서 보면 마치 섬처럼 보이지만 바다의 퇴적물들이 오랜 시간동안 쌓이면서 생긴 사주가 발달해서 육지와 이어져 있다.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덩달아 성산리에도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제주 관광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성산중앙로와 만나는 성산등용로는 옛 지명인 등용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이름은 용신을 모시는 마을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 성산리는 마을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포제를 지낸다. 성산일출봉이 바로 보이는 바닷가 언덕에 포제단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에서 유교식 의례로 진행된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포신과 더불어 바다를 관장하는 용신을 함께 모시면서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다. 해방 후 한때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마을의 화목과 안정을 위해 다시 부활시켜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도로 / 오조로 | 오조리 식산봉



식산봉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성산일출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출로를 이용하거나 일주동로에서 오조로를 지나 성산일출봉까지 이어지는 한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한도로 인근에는 식산봉이 자리하고 있다. 식산봉(食山峰)은 옛날 오조리를 지키던 조방장이라는 사람이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식량을 쌓아놓은 것처럼 오름을 꾸몄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왜적들은 멀리서 식산봉의 모습을 보고 식량이 많으면 군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침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식산봉에는 희귀식물인 황근이 자라고 있어 제주도 기

식산봉이 있는 오조리(吳照里)는 성산일출봉에서 떠오른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오조리 마을 중심을 지나는 길이 오조로이다. 고려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이 마을은 제주의 동쪽 해안가를 지키는 군사들이 많이 머물렀다고 한다. 그래서 수전, 병문길, 관집터 등 관아와 병사와 관련한 지명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목수들이 많아 다양한 배들을 만들었다고 한다. 바다를 헤쳐나가야 했던 탐라국 사람들은 뛰어난 조선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고성중앙로/산성효자로/동류암로 | 고성리 효호자

고성중앙로는 고성리 마을 중심을 지나는 도로이다. 고성리는 ‘옛 성이 있었던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옛날 정의현의 현성이 이곳에 세워졌다가 성읍으로 옮겨가면서 고성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고성리는 북쪽은 오조리, 남쪽은 온평리, 동쪽은 성산리, 서쪽은 수산리와 연결된다. 이렇게 성산읍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리에는 효자 홍달한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한다. 홍달한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집안의 모든 돈을 들여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은 갈옷을 입고 마루방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아침마다 아버지 변의 맛을 보면서 건강을 확인했다. 어느 날 홍달한이 옷에 붙은 이를 잡아 놓아주고 있었는데 말총장수가 홍달한을 놀리려고 시루에 찌면 이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홍달한은 그 말을 믿고 갈옷을 찼다가 그만 옷이 입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후 말총장수가 육지로 떠나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계속 떠날 수 없었다. 점쟁이를 찾아 물어보니 효심이 깊은 사람을 희롱한 죄라는 말을 듣고 홍달한에게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고 한다. 홍달한의 효심은 궁에도 알려져 그를 기리는 효자비가 세워졌다. 고성리에서 수산리로 이어지는 **산성효자로**는 바로 홍달한의 효자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고성리 마을을 지나는 **동류암로**는 옛지명인 동류암(東流岩)을 반영한 이름이다. 동쪽으로 흐르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의 식수로 이용했던 물이라고 한다. 이 연못의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지금의 동남동(東南洞)이 되었다. 지금은 매립이 되어 연못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시흥하동로 | 시흥리

시흥하동로는 시흥리 하동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시흥은 ‘비로소 흥성하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힘센 장사가 많아 심돌(力堦)이라 불렸다고 한다. 그래서 심돌 부대각이란 장사 이야기가 전해온다. 부대각은 어느 해 장사를 하러 육지에 나갔다가 그곳 상인들과 시비가 붙자 힘으로 굴복시키고 사과를 받는다. 그리고 물건을 배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해적을 만나 위협에 처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엄청난 힘으로 해적들의 배를 침몰 직전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해적들의 배에 있던 물건까지 얻어서 유유히 돌아왔다고 한다.